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우리의 영적인 반식과 주님의 상의 내용

8/11 월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0:3

3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요 6:31

31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 떡을 그들에게 주시어 먹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요 6:32-35, 48-51, 57-58

3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떡을 여러분에게 준 이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참떡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입니다.”

34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니,

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48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49 여러분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50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출애굽기 16 장은 우리 존재의 근원 즉 우리의 조성 성분을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계시한다. 그저 만나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늘에 속한 음식이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출애굽기 16 장을 피상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 우리가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떠나 이 장을 두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빛 비춤을 받고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먹고 살아야 함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전에 종교 안에 있었을 때 만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어떤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관한 피상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이집트의 오이와 마늘을 갈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 얼마나 피상적인 말인가! 출애굽기 16 장에 있는 깊은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식을 바꾸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요점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음식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에 있다.(출애굽기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6, 46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기념이 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시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조성하는 요소가 되신다. 즉 그들을 재조성되게 하는 요소가 되신다. 우리의 존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기념할 만한 가치가 없다. 오직 우리의 조성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기념이 될 가치가 있으시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올바르게 그분을 지속적으로 먹는다면, 영원 안에서 그분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을 것이다. ... 오늘날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은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념은 하나님의 임재, 심지어 그분의 존재 자체 안에 간직될 것이다.

우리가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회상하는 것에는 두 방면이 있을 것인데, 하나는 우리를 재조성하는 요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방면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만드는 공급이신 그리스도의 방면이다. 이 두 방면은 분명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의 체험과 관련된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취함으로써 매 집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성 성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의 이 두 방면은 영원 안에서 기념이 될 것이다. ...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렸고 또한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취하여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간직될 만나이다.

지성소는 성막 안에 있었고, 성막은 바깥뜰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바깥 뜰

안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었으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안에 향아리가 있었으며, 그 금항아리 안에 만나 한 오멜이 있었다. 외관상으로는 언약궤가 성막의 초점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초점은 ... 만나였다. 만나는 다섯 층의 덮개 아래 감추어져 있었고, 따라서 실질적인 초점은 금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였다.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점인가? 금항아리에 있는 만나가 하나님의 거처의 초점이었듯이, 우리가 먹은 만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의 초점이 되셔야 한다. 성막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거처였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이다. 체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막과 동일하다고 여길 수 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건축물이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성막이다. 우리는 교회의 일부이므로 우리 모두는 단체적으로 성막과 동일하다. 교회의 일부이므로 우리 존재의 초점은 만나여야 한다. 이러한 만나를 좀 더 완전히 설명하자면, 바로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건축물의 초점은 그분의 백성이 먹고 소화하고 동화한 그리스도이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8, 481-482, 477-47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2-34

8/12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4:1

1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후 3:6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출 16:16, 32

16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라. 너희 가족의 인수에 따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각 사람이 자기 천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

32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만나를 한 오멜 가득 채워 대대로 보관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게 한 이 양식을 자손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

민 11:5-6

5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거저 먹던 생선이 생각나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6 그런데 지금은 입맛도 잃었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딤후 1:12

12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만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양식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심지어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민 11:6 하)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 수백 가지의 근원이 있고, 수백 가지의 소위 사역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 특히 신약에는 단지 한 사역만 있다. 열두 사도 모두가 동일한 사역에 참여했다. ... 유다에 관해 말하면서 베드로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역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행 1:17) 라고 말했다. 이것은 열두 사도 모두가 ‘이 사역’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것은 신약에 유일한 한 사역만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이’ 사역의 일부분이 아닌 어떤 사역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종류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에 속한 만나와는 다른 어떤 양식을 취하는 것이다. 맨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 곧 생명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한 생명나무, 한 만나가 있다. ...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메시지들을 전했다. 그러나 이 모든 메시지는 한 양식, 한 음식을 제공했는데,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양식이신 그리스도였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5, 451-45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출애굽기 16 장과 민수기 11 장은 만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한다. ... 메추라기는 저녁에 왔지만, 만나는 아침에 왔다 (출 16:21). ... 만나가 아침에 왔다는 사실은 만나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구는 지축을 중심으로 매일 자전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곧 새로운 전환을 갖는다. ... 만일 하나님께서 일 년에 한 번 만나를 보내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 날마다 만나를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영적 체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매일의 전환, 즉 매일의 새로운 시작이다. ...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주님, 오늘 밤 쉬고 내일 아침에 당신과 새로운 시작을 갖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새로운 날, 즉 모든 새로운 시작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만나는 항상 이처럼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만나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잘다는 것이다(출 16:14 하). ...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칠고 균형 잡혀 있지 않다. 심지어 친절이나 겸손과 같은 미덕에서조차 우리는 거칠고 균형 잡혀 있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주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취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릴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된다. 출애굽기 16 장 31 절은 만나가 희다고 말한다. 만나는 어떤 혼합된 것 없이 깨끗하고 순수했다. 땅에 속한 어떤 음식도 만나와 같지 않다. ...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순수하다. 그리스도를 잔치로 누리고 그분의 말씀을 먹을수록, 우리는 더 순수해지고 온갖 혼합된 것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하다. 어떻게 이 복잡한 사람들이 단순해질 수 있는가? 단순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주 예수님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더 단순해진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단일하고 순수한 사람이 된다.

우리의 만나이신 그리스도께 동참할 때, 우리는 순수해지고 단순해질 뿐 아니라 희게 된다. 희게 된다는 것은 얼룩이 없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얼룩들이 제거된다. ... 사실상 우리의 인간 미덕 중 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취할수록, 우리의 타고난 색깔은 더 제거되며, 우리는 더 희어진다.

만나는 또한 서리와 같았다(출 16:14). ... 이슬과 서리는 모두 신선하다. 그러나 이슬은 신선하지만 세균을 죽이지는 못한다. 하지만 서리는 세균을 죽인다. 만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상쾌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죽이기도 하신다. 그리스도를 생명 공급으로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적셔지고 상쾌해지며,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예를 들어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와 같은 것이 죽음에 넘겨진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6, 456, 459-460 쪽, 메시지 37, 468-47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5-39

8/13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0:4

4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민 20:8

8 “너는 막대기를 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여라. 너는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출 17:6

6 이제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민 20:8

8 “너는 막대기를 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여라. 너는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요 19:34

34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요 7:37-39

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반석으로서 믿는 이들을 따르시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물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 장 4 절에 있는 ‘영적인 물’은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출 17:6)를 가리키며, 이것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시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물이 되시는 그 영(요 7:37-39, 고전 12:13)을 예표한다. 살아 있는 영적인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로 맞으셨다. 이것은 부활 안에서 그분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분의 구속된 백성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마시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 우리는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셔야 하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마셔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을 통하여 이 땅에 반석으로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권위로 맞으셨다. 그분의 옆구리는 찢렸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실 수 있도록 생수가 흘러나왔다 (요 19:34). 이 생수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 곧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흘러나오미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0, 68-7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민수기 20 장 2 절부터 13 절까지는 물이 부족하여 생긴 어려움을 보여 주는데, 이 물은 생명의 영의 예표이다(요 7:37-39, 롬 8:2). 이러한 예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의 영이 부족할 때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영이 풍성하게 공급될 때, 그들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도 해결된다 (민 20:2 각주 1)

출애굽기 17 장에서 모세가 자신의 막대기로 반석을 치자, 백성이 마실 물이 흘러나왔다. ... 이 반석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에 그들을 따랐던 영적인 반석이었다 (고전 10:4).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분의 백성을 따르는 반석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성을 따르는 이 반석은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항상 교회와 함께하시며 믿는 이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영도 이미 주어지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다. 즉, 생수가 흐르도록 다시 반석을 칠 필요가 없다. ...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서 생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만 '막대기를 들고 반석을 향해 말하면' 된다. 막대기를 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반석을 향해 말하는 것은 맞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직접 말하는 것이며, 그 영께서 이미 주어진 사실에 근거하여 생명의 영을 주시도록 그분께 요청하는 것이다(비교 요 4:10).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시도록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요청할 때 우리는 생명의 넘치는 공급(빌 1:19)이신 살아 계신 영을 받게 된다 (민 20:8 각주 1)

하나님을 거룩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을 다른 모든 거짓 신과 분별함으로써 그분을 거룩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룩하시게 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속되시게 만드는 것이다. 모세는 백성에게 화를 낸 일(민 20:10)과 반석을 두 번 치는 잘못을 저지른 일(11 절)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시게 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모세는 화를 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합당하게 대표하지 못했고,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손상한 것이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동반자로 여겨지기도 했지만(출 33:11), 이 일 때문에 그는 좋은 땅으로 들어갈 권리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따라야 하며,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그분을 거룩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그분을 거스르고 그분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민 20:12 각주 1)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0-41

8/14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0:16-17

16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17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고전 11:23-26

23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24 감사드리신 후에, 떡을 떼시어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 또한 그들이 먹은 후에, 이와 마찬가지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마시되,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눅 22:19

19 예수님께서 또 떡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십시오.”라고 하시고,

시 16:5

5 여호와와 저의 유업과 잔의 몫이시니 주님께서 저의 소득을 지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 장 16 절에서 ... ‘교통’이라는 단어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 참여를 가리킨다. 이것은 주님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과 하나 되게 한다. 참여 자들인 우리는 주님의 피의 교통과 주님의 몸의 교통 안에서 주님과 동일시된다. 여기에서 사도의 생각은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하나 되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믿는 이들의 교통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서로 함께 누리는 것을 함축한다. ... 이스라엘 자손은 좋은 땅에서 거둔 그들의 소산을 잔치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누림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서로 함께 잔치하였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상은 주님의 잔치이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 올 때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몸이라는 두 가지 코스로 이루어진 잔치에

오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믿는 이들의 교통을 위한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1, 73-7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과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몸과 분리되었음을 함축하며,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잔치로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잔치가 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셔야 했다. 고린도전서 10 장 16 절에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몸이, 잔치하는 곳인 상 위에 있는 것을 본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피와 몸을 가지실 수 없었을 것이다. ... 육체 되심을 통해 그리스도는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히 2:14),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그분의 피가 그분의 몸에서 분리되었으며(요 6:53-55), 부활 안에서 우리의 자양분과 누림을 위해 상 위에서 잔치 음식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 위에서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본다.

그리스도께 동참할 때, 즉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그분과 동일하게 되며 그분과 하나가 된다. 한 떡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상징한다. ... 우리가 한 떡에 함께 참여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그 분의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 모두가 참여한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한 몸으로 조성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몸을 상징하는 떡에 공동으로 참여할 때, 그 떡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몸을 상징하는 한 떡으로 만든다. 한 면으로, 떡은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물질적인 몸을 상징한다. 또 다른 면으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거듭난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비밀한 몸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삼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이끌린 이들이다. 그러므로 떡은 주님께서 그분의 비밀한 몸을 산출하시기 위해 그분의 물질적인 몸을 희생하신 것을 가리킨다.

고린도전서 10 장 17 절에서 떡은 유기적인 구성체이자 단체적인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떡은 부활 안에서 주님께에서 산출된 무언가를 상징한다. 주 예수님의 죽음 전에 그분은 한 알의 밀이셨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그분의 부활 안에서 무언가가 산출되었는데, 바로 많은 열매, 한 단체적인 실체, 한 덩이, 한 떡, 한 단체적인 몸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부활 안에서 자라심으로써, 많은 밀알인 많은 믿는 이를 산하시어 그들을 한 떡, 곧 그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심을 함축한다. 많은 밀알들, 곧 모든 믿는 이들(요 12:24)은 고운 가루로 갈린 다음 함께 섞여 한 덩이를 이룬다. 이 한 덩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하나인 것을 본다.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의 모든 지체들이 그 한 덩이로 대표된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1, 74-75, 80-8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0

8/15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1:25

25 또한 그들이 먹은 후에, 이와 마찬가지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마시되,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6:27-28

27 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다 이것을 마시십시오.

28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겔 36:26-27

26 내가 또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며,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

27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들을 지켜 준행할 것이다.

눅 22:20

20 저녁을 드신 후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히 8:10-12

10 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11 그들 각 사람은 결코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12 그것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잔은 하나님 자신을 포함하는 신약의 모든 풍성한 축복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세워졌다.

누가복음 22 장 20 절에 따르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제정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몫을 확증해 주는 새 언약 혹은 권리 증서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곧 더 좋은 언약이 세워졌고(히 8:6-13), 이 언약은 그분의 부활 후에 새 유언이 되었다(9:16-17).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언약이 되었고, 이 언약은 잔 곧 몫이 되었는데, 이 몫은 바로 우리의 누림을 위한 축복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과 구원 등 영적이고도 하늘에 속한 신성한 모든 축복을 주신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1, 8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위해 많은 놀라운 것을 이루었다. ...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구속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막혔다. 창세기 3 장 24 절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생명나무로 다시 이끈다! 요한계시록 22 장 14 절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한다. 이 절은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누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나무, 곧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는 또한 믿는 이들을 생명의 물들로 인도한다. 요한복음 7 장 37 절에서 주 예수님은 목마른 모든 사람에게 그분께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 날마다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요한계시록 7 장 14 절에 따르면, ‘그들의 겉옷을 어린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은 어린양에 의해 ‘생명수의 샘들’(17 절)로 안내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생수를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히브리서 10 장 19 절과 20 절은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연다. 이것으로 인해 ...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매일 그분을 주입받을 수 있다.

언약의 피는 주로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뉘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누리도록 정하시고 예정하셨다. 이 누림 또한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되었다. 이 언약이 무엇을 통해 세워졌는가?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으며, 그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신성한 축복 안으로 이끈다. 마태복음 26 장 28 절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2 장 20 절에 따르면, 주님은 “이 잔은 ...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고린도전서 10 장 16 절에서 바울은 이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부른다. 이 축복의 잔은 피로 세워진 언약이다. 새 언약의 피는 바로 축복의 언약을 세운 피이다. 이 언약은 잔이며 또한 우리의 뉘인 축복이다. 이 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 자신이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9, 968-969, 973-97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2

8/16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계 22:14

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고전 11:26

26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 26:17, 19, 26-30, 38-39, 63-64

17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주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하니, 19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26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드십시오. 이것이 내 몸입니다.”라고 하시고,

27 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다 이것을 마시십시오.

28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29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30 그리고 그들은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나아갔다.

38 그들에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시고는,

39 조금 더 나아가시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63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내가 그대에게 명령하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우리에게 말하십시오.”라고 하니,

64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대제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장차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피는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이끈다. 즉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지성소에 뿌려진 피로 인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며 그분의 주입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산출한다.

요한계시록 7 장에서 ‘그들의 겉옷을 어린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생명수의 샘들로 이끌린다. ... 피로 빨으로써 우리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새 예루살렘성 안으로 들어갈 권리를 얻는다 (계 22:14). 생명나무와 그 성은 우리의 뉘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면들이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언약의 피가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뉘이신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데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볼 것이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9, 974-97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의 만찬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념할 뿐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동시에 주님을 기념하고 그분의 구속하며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요 19:34)을 진열한다. ... 고린도전서 11 장 26 절에서 '선포하는'이라는 단어는 '선언하는', '알리는', '진열하는'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진열한다. 사실상 우리는 온 우주에, 즉 귀신들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진열함으로써 그 분 자신을 기념한다.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때, 떡과 잔은 상 위에 따로 진열된다.

떡은 주님의 몸을 가리키고, 잔은 그분의 피를 가리킨다. 몸과 피가 분리된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죽음을 진열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종결하셨다는 것, 즉 다음 열두 항목을 종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알린다. 그 항목들은 천사들의 생명(골 1:20), 인간 생명(갈 2:20), 사탄(히 2:14, 요 12:31), 사탄의 왕국(골 2:15, 요 12:31), 죄(고후 5:21, 롬 8:3), 죄들(벧전 2:24, 사 53:6), 세상(갈 6:14, 요 12:31), 죽음(히 2:14), 육체(갈 5:24), 옛사람(롬 6:6), 자아 (갈 2:20), 모든 창조물(골 1:20)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선포해야 한다(고전 11:26). 이것은 우리가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그분의 죽음을 진열할 때, 동시에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영과 분위기 안에서, 주님의 죽음을 진열하며 그분을 기념해야 한다. 우리에게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 그것은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의 몸을 변모시키시리라는 것이다(고전 15:51-54).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의 비천한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면(빌 3:21), 우리의 구속은 완성될 것이다(롬 8:23).

죽으신 후에 그분은 왕국을 받기 위해 떠나셨고, 왕국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단 7:13-14, 눅 19:12). 그분께서 첫 번째 오시는 것과 두 번째 오시는 것 사이의 기간이 교회 시대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간격을 매우고 과거의 그분의 죽음과 미래의 하나님의 왕국을 연결한다. 따라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은 왕국을 이끌어 오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암시한다. 첫 번째 오셨고 이제 두 번째 오실 그 분을 지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그 만찬은 왕국 곧 하나님의 행정과 관련하여 그분께 만족이 된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2, 90-9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1

8/17 주일

아침의 누림

출 12:1-11

- 1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 2 “이달이 너희에게 시작의 달, 곧 한 해의 첫째 달이 될 것이다.
- 3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이달 초월흘날에는 각자 자기 조상 집안에 따라 어린양 한 마리 곧 한 집안 식구가 먹을 어린양 한 마리를 골라야 한다.
- 4 만약 어린양에 비해 집안 식구가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람 수를 감안하여 어린양을 고르되, 각 사람이 먹는 양을 가늠하여 어린양을 먹을 인수를 계산해야 한다.

5 너희의 어린양은 흠 없는 일 년 된 수컷이어야 하되, 양 가운데서 고르든 염소 가운데서 고르든 상관없다.

6 그것을 이달 열나흘날까지 잘 두었다가, 어스름한 저녁에 이스라엘 회중의 온 무리가 잡아야 한다.

7 그리고 그 피 열마를 가져다가 양을 먹을 사람들이 있는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8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9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모두 먹어라.

10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는 안 되나, 아침까지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불태워야 한다.

11 너희는 그것을 먹을 때에 이렇게 해야 한다.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급히 먹어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